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 담스코가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영필 사장
(주)담스코

뛰어난 생산기술로 제조되는 깔레오 난방필름은 안정된 저항 변화율과 일정한 온도분포를 자랑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주)담스코는 올해 3월 일본의 전문 면상발열체 전문 제조, 판매 업체인 IA 시스템과 공급계약을 체결해 세계제일의 품질을 요구하는 일본시장에 담스코의 제품이 당당히 진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같은해 8월 유럽전역에 대규모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바닥난방 전문회사인 Global-Idea Heaters와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한것은 놀라운 성과다.

품질기준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이스라엘과 유럽시장 기준을 통과하려면 웬만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고서는 발도 디딜수 없기 때문이다.

김사장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담스코의 인기는 날로 더하고 있습니다”며 “올해말까지 1500 세대에 필름난방이 설치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1만세대정도는 무난하게 설치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처럼 해외로의 진출이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주)담스코 매출액은 연말까지 10억은 무난

“난방필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주)담스코 대표이사 김영필 사장의 말이다.

약 20년전부터 보일러, 공조, 태양열, 심야전기 보일러 설비등을 해오던 김영필 사장이 난방필름에 도전한것은 불과 2년전의 일이다.

김사장은 난방용 Film Heater(면상발열체), 도전성 Paste, 제조장비등 원천기술을 확보해 자체설계로 이뤄지는 담스코만의 기술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어놨다.

(주)담스코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하고 있는 난방용 필름은 필름의 변형 위험성 때문에 고온의 열처리 과정이 생략된채 생산되는 난방필름의 품질문제를 앞서가는 기술력과 첨단장비 도입으로 문제점이 모두 해결됐다.

특히 전도성 고분자 물질의 원천기술을 확보해

할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중 국내에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0%를 차지하며 해외에서 벌어들인 금액도 약 50%에 해당돼 순항을 하고 있는 셈이다.

“내년 우리회사의 매출목표는 약 20억이며 이중 해외 물량을 70%, 국내물량은 30%로 계획중에 있다”며 “현재 수출국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뉴질랜드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업체와의 사업제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무난히 매출목표가 달성될것으로 예상된다”고 김영필사장은 말한다.

현재 (주)담스코의 난방필름이 설치되는 곳은 호텔과 모텔, vostus, 별장, 기도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고시원, 음식점, 오피스텔등 일반가정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에 사공된다.

또한 농업용 시설 하우스나 선박, 선실 난방용등 대규모 평수에도 에너지절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주)담스코의 깔레오 필름난방은 1시간이면 바닥난방공사가 끝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도핑기술을 통해 시공이 빠르고 간단해 이웃과의 분쟁소지를 말끔히 줄이고 발코니 확장공사시 시멘트 몰타르속에 엑셀파이프를 연결하는 종래의 방식이 발코니 하중과 아파트 전체구조에 무리가 생길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0.3mm의 얇고 가벼운 발열필름을 사용해 가장 안전한 공사로 칭송받고 있다는것이 김사장의 말이다.

특히 깔레오 난방필름은 국제안전규격의 온도조절기와 누전차단기를 통한 2중 3중의 안전장치외에 공인된 난연자재를 사용해 화재예방효과가 있고 최고 2억원의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해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얻어냈다.

김영필 사장은 “이와함께 원적외선 웰빙룸을 보너스



로 드립니다”라며 발코니 확장공사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잊점외에도 원적외선, 음이온 건강 웰빙공간, 즉 ‘원적외선 웰빙 룸’을 보너스로 얻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개념 난방제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깔레오 난방 필름이 있기까지 김영필 사장은 무엇보다도 (주)담스코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을 자랑한다.

산자부 기술심사위원을 지내고 인천대 교수를 역임한 문중근 연구소장과 기계공학 석사를 수료하고 LG화학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주진혁 기술이사, 자동제어 기사1급을 보유한 생산품질 박현종 팀장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의견이 한데모여 깔레오 난방필름이라는 안전성과 편리성이 강화된 제품이 탄생된것이다.

연구소 문중근 소장은 “난방필름은 생산품질 못지않게 시공품질이 중요합니다”라며 “(주)담스코 연구소에서는 시공현장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카본잉크 및 필름의 레진설계, 바인더 선택과 분산도 등을 다양하게 디자인하는등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저희 스텝들은 열심히 노력해 안전하고 경쟁력있는 난방필름을 개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강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이처럼 최고 기술인력을 보유한 담스코는 향후 소비자들에게 뛰어난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